



캄보디아 PMT항공 추락사고 실종자 가족들이 26일 사고현장으로 떠나기에 앞서 인천 공항 출국장지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탑승을 기다리고 있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왼쪽)가 26일 프놈펜 서남쪽 약 130km 지점 캄포트주(州)에서 여객기 추락과 관련한 탑승객 구조회의에 앞서 신현석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오른쪽)에서 두번째로 함께 걸어가며 주(州) 정부관리들과 악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휴대전화 발신음 확인...수색지역 압축

■추락 캄보디아기 수색 이틀째

한국인 13명을 포함, 22명을 태운 채 25일 캄보디아 남부 캄포트 산악지역에서 실종된 여객기에 대한 수색작업이 26일 오후 날씨가 호전되면서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사고 현지 군사령부를 찾아 수색작업을 진두 지휘했다.

현지 수색팀은 26일 로밍 서비스를 받은 한국 관광객의 휴대전화 신호를 계속 보낸 결과 두 대의 전화에서 발신음이 확인돼 사고 항공기가 폭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 당국자는 "한국시간 오늘 오후 2시20분경부터 기상이 호전돼 헬기 4대를 동원, 수색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현지 제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여객기가 불시착 또는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4곳에 대해 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4곳 중에서도 특히 캄포트에서 30km 떨어진 산악 지역이 추락 또는 불시착 지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

기상상태 호전...총리 경호부대도 동원돼

탑승자 가족·정부 신속대응팀 현지 도착

폭발 흔적 없어 "혹시나..." 실낱 희망

고 집중 수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경 수색팀은 캄포트주(州)의 보코산 서사면 부근을 유력한 추락지점으로 보고 수색을 강화하고 있다. 해발 1,080m의 보코산은 캄포트와 시아누크빌의 중간 지점으로 수도인 프놈펜으로부터 150여km 떨어져 있다.

수색작업에는 총리 경호부대원 200명을 포함한 특수전부대 1천200명이 동원됐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현장에서 신현석 주 캄보디아 대사과 1시간40분여 면담하면서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며 서울서 오는 가족들은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예우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당국자는 소개했다.

실종된 캄보디아 여객기가 밀림지대에 불시착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캄보디아 군경 수색팀과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사고 여객기가 추락하면서 폭발을 일으켰을 경우 위상에서 관측이 가능할텐데 관측 보고가 없는 점으로 보아 소형 여객기인 AN-24가 밀림지대에 불시착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생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대사관의 오낙영 참사관은 "탑승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음을 계속 보낸 결과 두 대의 전화에서 발신음을 들었다"고 밝히고 "이는 사고 항공기가 폭발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종자들의 생존 가능성을 희망하게나마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인 실종자 가족 18명은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으며, 프놈펜에 도착하는 대로 사고 현장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갑열 외교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대사 등 외교부 당국자들과 건교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경찰청 등 관계자들로 구성된 사건 신속대응팀 8명도 이날 오후 현장으로 떠났다. /프놈펜=연합뉴스

'500억 바지사송' 한인 세탁업자 승소

"피어슨 판사 용서, 손님으로 오면 받겠다"

미국 워싱턴 DC 상급 법원은 25일 한인 세탁업자에 대한 5천400만 달러 배상소송 1심 판결에서 한인 세탁업자 정진남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원고측이 항소를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국제적 관심을 모은 이번 '바지사 분실 소송' 사건에서 워싱턴 DC 상급법원의 주디스 바트노프 판사는 한인 세탁업자 정진남씨 등이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원고측이 제기한 3개 혐의사실을 모두 불인정, 세탁업자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자신의 바지사 분실을 이유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로이 피어슨 워싱턴 행정심판소 판사는 한인 세탁업자가 소비자 만족 보장이라는 간판을 내걸었다는 이유로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바트노프 판사는 "원고 피어슨은 피고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피고 정진남 등은 피어슨에 맞선 법적 행동에 대한

비용을 보상받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피어슨 판사는 정씨 등이 이번 소송에 대응해 지출한 총 1천달러 가량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정씨가 지출한 수 만 달러 상당의 변호사 비용도 원고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청원을 어떻게 할 지는 추후 심리하기로 했다고 법원측은 설명했다.

세탁소주인 정진남씨는 판결 후 "2년동안 너무 오랫동안 끌어왔는데 속이 후련하다"고 결과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정씨 부부는 판결 직후 세탁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기고 지고간에 상처밖에 남은 게 없다"며 "지난 2년간 약복속에서 살았지만 피어슨 판사를 용서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씨 부인은 피어슨 판사가 다시 손님으로 온다면 받아들이겠다는 질문에 "본인이 우리 가게를 원한다면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워싱턴=연합뉴스

대북 쌀 차관 40만 30일부터 순차 제공

북핵 2·13합의 이행 지연으로 보류돼 오던 대북 쌀 차관 40만이 오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복속된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30일 첫 항차로 쌀 3천t이 군산항에서 북한 남포항으로 보내질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이날 북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의 조속한 이행 요청이 있었으며 인도적 문제에 대한 우리 내부와 국제기구 및 남북 교섭단체 등 국제사회의 지원 요청 등을 종합 검토해 이행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으

로 작년에 이뤄지지 못했던 대북 쌀 차관이 재개됐다.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유보됐던 쌀 차관을 2·13합의 도출 등으로 북핵 상황이 나아지자 지난 4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5월말부터 지원하기로 했던 방곡모델아시아 문제로 2·13합의 이행이 늦어지면 다시 보류해 왔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쌀 차관이 2·13합의 이행의 영향을 받는다는 질문에 "쌀 차관 제공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측과 6자 여러 나라들의 공동 노력이 잘 성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답해 여전히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고물차·비행기에 저가관광도 한 몫

■동남아여행 위험 왜

캄보디아에서 25일 발생한 여객기 추락사고로 동남아 낙후지역의 관광에 대한 위험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 지역 관광의 위험성은 10년 전인 1997년 9월 한국승객 21명을 포함한 66명의 승객을 태운 베트남항공 여객기가 캄보디아 포넛항공에서 추락한 사고가 발생하자 각 여행사는 여행상품의 항공사를 바꿀 수 없겠느냐는 문의가 잇따랐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현재 캄보디아 여행객의 일부를 인건에서 시엠리아프까지 운항하는 PMT항공의 156석짜리 MD83 기종을 통해 이동시키고 있는데 일부 예약자들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베트남항공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는 문의가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나투어 등 캄보디아 여행상품을 판매 중인 여행사들은 고객 안전을 위해 항공 사고 발생 지점인 시아누크빌을 경유하는 여행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연합뉴스

시아누크빌 여행상품 판매 중지

■여행업계 대책 마련 분주

여행업계가 본격적인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캄보디아 항공기 추락 사고가 발생하자 시아누크빌 일정이 포함된 여행상품 판매를 중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6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한국인 13명을 태운 캄보디아 PMT항공기가 추락한 사고가 발생하자 각 여행사는 여행상품의 항공사를 바꿀 수 없겠느냐는 문의가 잇따랐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현재 캄보디아 여행객의 일부를 인건에서 시엠리아프까지 운항하는 PMT항공의 156석짜리 MD83 기종을 통해 이동시키고 있는데 일부 예약자들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베트남항공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는 문의가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나투어 등 캄보디아 여행상품을 판매 중인 여행사들은 고객 안전을 위해 항공 사고 발생 지점인 시아누크빌을 경유하는 여행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연합뉴스

위험국가 방문 제한한다

정부,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앞으로 전쟁이나 내란 및 재난 등이 발생한 위험국가에 내국민들의 방문이나 체류를 정부가 강제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위험국가나 지역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대규모의 천재지변, 전쟁·내란,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국가 등에서 여권 사용을 금지해 방문이나 체류를 못하게 하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등 61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여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여권의 사용제한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토록하고, 다만 위험국가의 영주권자나 공익 목적의 취재·보도를 위해 방문하는 경우에는 허락하는 예외규정을 뒀다. /연합뉴스



"북한 여성 도추지씨 일본이 4년전 납치" 주중 북대사관, 도씨와 합동 회견

북한은 26일 일본이 4년 전인 지난 2003년 10월18일 북한여성 도추지씨(58·사진)씨를 강제로 납치했다고 주장했다.

주중 북한대사관은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각) 베이징 시내 북한대사관에서 도씨를 배석시킨 가운데 내외신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도씨는 "저는 지난 2003년 10월18일 나쁜 사람들의 권수에 넘어 본의 아니게 두만강을 넘어갔다가 강제로 쫓겨쳐 실려왔다"고

폭로했다. 그녀는 "머칠 후 중국 선양(瀋陽) 주재 일본총영사관을 통해 일본으로 갔다"면서 "2003년 11월21일부터 일본에서 자리를 잡고 생활했다"고 말했다.

도씨는 1949년 10월28일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에서 도상달씨의 셋째딸로 태어났으나 1960년 부모와 함께 제48차 북송선을 타고 북한에 입국했다. /베이징=연합뉴스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이란 검정과 사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마술을 통하여 어린이에게는 꿈과 아이큐 향상을, 성인에게는 개인의 정서(정신) 및 취미생활로 활용하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은 웃음을 잃은 사람에게 용기와 꿈과 희망을 주는 데 목적이 있으며, 본 무료교육 프로그램은 마술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사회봉사처원에서 실시하는 무료강좌 프로그램입니다.

※ 모/집/대/상 ※

- 유치원 초·중등교사로서 수업에 활용하실분
- 봉사활동 및 취미로 배우시려는 주부 및 어르신
- 마술에 관심있는 초·중·고등생 및 일반인
- 소극적인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응용
- 비즈니스를 위한 영업전략에 활용하실분
- 초·중등생 게임중독치료 및 발표력 향상
- 초·중등 특기적성 마술교사로 활동하실 분(취업추천)

무료 초·중등 어린이 마술특강 개설

마술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아이큐 향상 및 요즘 화두로 떠오르는 BQ(감성)지수도 높여준다. 특히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활용할 수 있다.

- ★교육기간 : 주1회 8주 2개월
- ★교육비 : 무료(미술투구비 별도, 개인소장)
- ★교육장소 : 롯데백화점 지하B/D 3층
- ★접수방법 : 선착순 20명 전화 예약 접수(개인교수)

O신기한 1일 마술교실체험 유치원, 초·중등학생, 태권도도장, 각·예능학원
O각종행사, 마술 출장공연, 어린이 관련행사, 동문회, 교회행사, 아우회
O어떤 행사라도 마술사가 신비하고 재미있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매직&매직 아카데미 ☎(062)526-2500

제회 경찰청인증 공인자격. 10월 14일 확정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란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하여 정 부기관이나 사고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의뢰를 받아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교통사고조사 전문가를 말한다. WTO가 입국 중 교통사고와 사망률이 각각 1.2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정부는 당사기간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선진교통사고조사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경찰청 주

설감정사 등으로 업무영역이 매우 넓어, 매년 수 천명 이상의 수요가 예상되며 전문가는 2~5년 이내에 최소한 8,000명~40,000명 이상으로 예측되며 신규 고용증상에 대해 업계와 당국의 관심은 매우 크다.(참고:사고발생 약21만건, 사상자 약34만명, 이의신청분쟁 매년 수천건씩 증가, 이상 2005년 경찰청 발표)

시행과목으로는 교통관련법규 등

마무리 적중 문제풀이 특강 실시(광주)

법적 공인력 부여, 조사 자료증거 채택, 검찰, 경찰, 법원, 군 헌병 등 취업가능

관으로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미국 등 OECD가입 선진국들은 이미 제도가 정착되어 조사전문가에 의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결정적으로 뒤바꾸게 하거나 사고현상에도 영향을 주어 고액의 대행수수료는 물론 전문기관에서 사회적 명성까지 한순간에 획득하여 고소득 전문직으로 인기가 매우 높다. 시행령의 발표에 따르면 「도로교통사고감정사」의 주요 진출분야로는 도로교통사고 관련 검찰, 경찰, 법원, 군 헌병 등 공무원직 기관이나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기관, 일반 교통관련기업체, 사

4차관 개관과 실무이며, 전 과목 평균 60점이면 합격이고, 응시자격은 만18세 이상으로 학력·경력·무관하다. 특히, 일반시험에 마땅한 수험교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응시자를 위한 교육원의 안내자료와 **특별교육**까지 준비돼 있어서, 국가공인 제1회라는 시험특성까지 감안하면 시행 첫해에 올해 유래 없이 많은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가 탄생될 전망이다.

상담문의 / (062)528-7788

- 자격인증기관: 경찰청
- 시험주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자료제공: 교통사고감정교육원

사립교사 공채안내

영양교사 교수진 특별초빙강좌
2008년도 사립공채 모집안내
사립학교 수급계획에 따른 공채

지금(올해) 바로 최적기입니다
"전 과목" 선택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2009년부터 모집요강 변경예정

직원채용(정규직)

- ◎2년제이상 졸업자
- ◎남,녀(30세미만)
- ◎이력서지참요

주관: 전국교육신문사
교육정보연수원

광주지원 TEL. 062)511-6359
H.P. 017-631-4467

서울지원 TEL. 02)3664-5263